

무스잉(穆時英)의 스파이 소설 「G No.VIII」 연구*

— 장르적 수용과 변주를 중심으로

박은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상호기만과 이중적 정체성: 군중 속의 어릿광대
3. 장르적 변주: 모호한 피아(彼我)의 구분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0년대 상하이에서 신감각파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름을 떨친 무스잉(穆時英)의 스파이 소설 「G No.VIII」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무스잉의 창작 경향이 스파이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결합하여 어떤 독특한 문학 세계를 완성하는지 분석했다. 무스잉이 스파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을 수용했으며, 그것이 무스잉의 문학 세계 안에서 어떠한 변주를 일으켰는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첫 번째로 무스잉은 상호기만과 이중 정체성이라는 스파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수용하여 무스잉의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형상인 '군중 속의 어릿광대'를 재현했다. 두 번째는 무스잉이 시도한 장르적 변주에 대한 고찰이다. 명확한 주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행위를 통하여 애국심과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고취시켰던 동시대의 스파이 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해관계와 대척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사를 구현했다. 또한 무스잉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세력 경쟁과 중국 내부 정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742)

** 한국의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강사

세력의 이념 갈등 속에서 명확한 적을 찾지 못한 채 모호한 피아(彼我)의 구분으로 곤경에 처한다.

키워드: 무스잉(穆時英), 스파이 소설, 「G No.VIII」, 상하이(上海), 어릿광대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1930년대 상하이에서 신감각파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름을 떨친 무스잉(穆時英)의 스파이 소설 「G No.VIII」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무스잉의 창작 경향이 스파이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결합하여 어떤 독특한 문학 세계를 완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무스잉은 1930년 18세의 나이에 류나어우(劉呐鷗)가 창간한 잡지 『신문예』에 소설을 발표하며 중국 문단에 등장했다. 그는 '떠돌이 해적과 실직 노동자 등 뭍엔 프롤레타리아로 이루어진 세계'를 그린 소설집 『남북극(南北極)』을 출간하고, 스저춘(施蛰存)이 편집을 맡고 있던 잡지 『현대』에 대표작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夜總會里的五个人)」, 「상하이의 폭스 트롯트(上海的孤步舞)」, 「삐에로(PIERROT)」 등과 같은 “빛나는 문학적 재능과 상하이 생활에 대한 이해가 낳은 농밀한 신감각적 특징과 언어와 예술적으로 성숙한 현대도시소설”¹⁾을 발표했다. 그는 스저춘(施蛰存), 류나어우(劉呐鷗)와 함께 ‘신감각파’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꼽히지만, 그들의 창작경향과 서구 모더니즘 사조를 흡수하여 중국 모더니즘 소설을 가장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린 작가이다. 리어우판(Leo Ou-Fan Lee)은 류나어우와 무스잉을 평가하며 “무스잉은 류나어우에 비해 훨씬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작품도 더 많이 썼다.……무스잉은 류나어우의 작품을 모방하였지만 그를 초월했다.”고 말한다.²⁾ 신감각파 작가들만의 도시 감각과 시대의식을 반영한 창작활동은, 서

1) 穆時英 著, 嚴家炎, 李今 編, 『穆時英全集(第一卷)』,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5, 2쪽

2) 리어우판 지음, 장동천 외 옮김, 『상하이 모던』,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p. 317

구의 정신분석학, 모더니즘,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신흥장르인 영화의 기법 등을 도입하여 리얼리즘과 혁명문예에 치우쳐 있던 당시 중국문단에 실험성과 다채로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 중에서도 무스잉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우울과 번민, 고독, 욕망, 퇴폐, 환락 등의 다양한 감정을 그에 걸 맞는 리듬감 있는 문체와 서사를 바탕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당시 어떤 작가도 범접할 수 없는 개성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무스잉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 역시 그의 문학적 재능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도시생활과 결혼, 그리고 의혹을 남긴 때 이른 죽음은 그의 천재적 예술성과 조응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하지만 이처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학세계에도 불구하고, 무스잉을 비롯한 신흥작가와 작가들은 오랫동안 중국 문단에서 소외되어왔다. 20세기 중국문학의 창작과 연구의 주류가 리얼리즘이었던 데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문학에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됨과 동시에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1930년대 도시문화는 부르주아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 속에 신흥작가의 소설은 ‘퇴폐소설’로 인식되며 문학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개혁개방 이후, 1989년 옌자옌(嚴家炎)이 『중국현대소설유파사(中國現代小說流派史)』에서 신흥작가를 하나의 유파로 인정하고 기술하면서, 신흥작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옌자옌과 리진(李今)이 엮은 무스잉전집(穆時英全集)이 총 세 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전집에는 그가 생전에 출판했던 소설집 『남북극(南北極)』, 『공동묘지(公墓)』 등에 실렸던 작품들이 실려 있고, 기존의 소설집에서 빠졌던 단편소설 6편도 ‘集外小說’라는 명칭으로 함께 실렸다. 이 ‘집외소설’들 중 눈길을 끄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G No.VIII」이라는 제목의 스파이소설이다. 이 소설은 1936년 남경에서 발행되던 잡지 『문예월간(文藝月刊)』³⁾ 제 8권 1, 4, 5기에 실렸으며, G No.VIII은 소설의 제목이자 소설 속에

3) 『문예월간』은 남경의 국민당 정부 하에서 1930년부터 1937년 동안 발행된 잡지이다.

등장하는 미모의 여자 스파이의 명칭이다. 실제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가명으로 살며 스파이 활동을 하는 러시아국적의 여자와 이 여자 스파이가 자신이 오랫동안 쫓아 다닌 스파이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지는 국민당 특무과장이 소설의 주인공이다.⁴⁾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신감각파와 무스잉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부터 신감각파 소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의 무스잉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무스잉의 개별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보다는 무스잉과 한국의 구인회 작가를 비교한 논문 또는 무스잉의 전반적인 창작 세계를 고찰한 논문이 대부분이다.⁵⁾ 또한 무스잉의 전반적인 창작 세계를 고찰한 논문에도 「G No.VIII」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양후이(楊慧)의 「타자'와의 조우와 '상하이'에서 헤매다 - 무스잉 중편소설 G No.VIII의 백계 러시아인 서사 고찰(遭遇“他者”与迷失“上海”- 穆時英中篇小說G No.VIII의白俄叙事)」에서 「G No.VIII」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소

국민당 정부의 자금으로 출간되던 잡지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치성향을 지닌 순문학 간행물이었다. 韓雪林, 「張力與縫隙: 民族話語中的文學表達—對《文藝月刊》(1930-1937) 話語分析」, 『文藝爭鳴』, 2010년 13期

- 4) 「G No.VIII」를 창작하기 전, 무스잉은 1934년 출판된 그의 네 번째 소설집 『성녀의 감정(聖處女的感情)』에도 「어떤 부인(某夫人)」이라는 제목의 스파이소설을 실은 적이 있다. 「어떤 부인(某夫人)」은 한 일본 소좌가 기차에서 수상하게 보이는 조선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 눈에 반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유명한 스파이 Madam X였고, 일본 소좌는 Madam X의 계략에 걸려 곤경을 겪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G No.VIII」의 1장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Madam X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일본 소좌인 타다 테이시치는 「G No.VIII」에 똑같이 등장하며, 기차에서 여성 스파이의 몸과 가방을 수색하는 장면 역시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편폭도 매우 짧으며, 주인공들의 스파이 활동이나 심리 묘사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Madam X의 팜프파탈적인 면모만 부각된다. 또한 「G No.VIII」은 「어떤 부인」의 서사를 확장시켰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G No.VIII」만 집중적으로 다루려 한다.
- 5) 무스잉의 작품만 집중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위 논문으로는 손주연의 『穆時英 소설의 중층적 욕망 연구』(2009)가 있으며, 소논문으로는 전윤희의 「穆時英 소설 속의 두 가지 여성상 고찰」, 「목시영 소설 속의 상해 풍경」, 노정은의 「무스잉 소설의 근대경험 양상 고찰」 등이 있다.

설 속 스파이이자 백계 러시아인⁶⁾ 리사의 인물 형상을 분석했다. 양후이의 논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백계 러시아인 서사에 초점을 맞춰 주인공 리사를 반식민지 공간이었던 상하이의 독특한 ‘타자’로 규정했다. 때문에 스파이 소설이라는 장르와의 연관성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파이 소설 속에 나타난 무스잉의 문학세계를 ‘상호기만과 이중적 정체성’, 그리고 ‘모호한 피아(彼我)의 구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스파이 소설은 인간의 상호 기만을 가장 잘 구현해 낸 소설 장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인공인 스파이는 먼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된 신분으로 적에게 접근하여 적을 속인다. 적을 기만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기만해야 하는 것이 스파이의 숙명이다. 초창기의 스파이 소설이 ‘상호기만과 자기기만’에 중점을 뒀다면, 냉전 이후의 스파이 소설은 이 과정에서 스파이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고뇌에도 천착하기 시작했다. 무스잉의 스파이 소설은 초창기의 스파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서술한 냉전 이전/냉전 이후 스파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모두 수용하여 소설 속 주인공들이 1930년대 상하이라는 특수한 시대 공간에서 어떻게 서로를 기만하며, 또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은닉하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무스잉이 어떤 방식으로 서구에서 탄생한 스파이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수용하면서도 그만의 변주를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와의 접점을 시도했는지 고찰하려 한다.

6) 백계 러시아인은 미국, 캐나다 등 러시아 밖에 거주하는 반소비에트파 러시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무스잉의 소설을 비롯하여 당시 중국에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에 반대하며 중국으로 망명한 러시아인들을 ‘白俄’라고 불렀다.

2. 상호기만과 이중적 정체성: 군중 속의 어릿광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파이의 개념은 고래부터 존재해왔다. 스파이의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로, ‘멀리서 숨어서 본다, 숨겨져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 본다’라는 뜻에서 왔다. 하지만 16, 17세기부터 국가 간의 ‘외교’가 중요해지면서 중요한 문서를 단순히 보는 것 뿐 아니라 손에 넣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스파이의 뜻은 상대 국가의 외교, 군사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정탐, 수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이다.⁷⁾ 현대식 군사 무기의 발명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로 군사 기밀 계획과 문서를 훔치거나 복사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이 복잡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스파이 소설은 탄생했다.⁸⁾ 19세기 말 처음 등장한 스파이 소설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팽창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라디오 드라마, 영화, 선전물로 첩보서사와 첩보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천과 역사를 거쳐, 스파이 소설은 큰 틀에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로 스파이 소설은 “하나의 결론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속임수와 함정과 거짓 정보를 헤쳐가야 하는 개인, 과거에 배태된 음모를 파헤치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미래로 질주해 나아가는,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교집합이자 엄연한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위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탈색시켜야 하는 '투명 인간' 장르물”⁹⁾로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하면, 스파이소설에서 기만과 위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스파이소설이 야말로 “20세기 인간들의 상호기만과 자기기만”¹⁰⁾을 가장 잘 구현한 장르라

7) 스파이의 개념과 유래에 대해서는 윤노 히로시 지음, 안소현 옮김, 『스파이의 세계사』, 시간과 공간사, 2005년, 11~13쪽 참조.

8) 줄리언 시먼스 지음, 김명남 옮김, 『블러디 머더: 추리소설에서 범죄소설로의 역사』, 을유문화사, 2012년, 337쪽 참조.

9) 엘릭시르 펄넬, 『미스터리야』 통권 제3호, 문학동네, 2015년 10월, 4쪽

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스파이 소설은 보통 외국 세력과 음모에 의해 국가가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키는 것을 소설의 주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쓰인 스파이 소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스잉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스파이 소설을 수용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무스잉은 영화를 통하여 스파이 서사를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화'라는 매체는 중국 신감각과 작가들에게 기술과 형식적 측면 뿐 아니라 소재와 내용에서도 많은 영감을 시사했다. 무스잉 역시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영화를 접했을 뿐 아니라, 영화 관련 비평도 여러 편 발표했다.¹¹⁾ 그가 할리우드 여배우들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¹²⁾가 있는데, 그녀의 대표작이 1931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마타 하리(Mata Hari)'였다.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 첩보원으로 활동한 실존 인물이자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인 마타 하리를 소재로 한 영화로, 무스잉이 그레타 가르보가 주인공인 이 영화를 통해 '미녀 스파이'라는 인물 형상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의 무대였던 상하이의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 '간첩' 또는 '방첩활동'과 관련된 기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¹³⁾ 또한 무스잉이 「G No.Ⅷ」에서 상하이사변 무렵 G No.Ⅷ와 함께 군사 기밀을 훔쳤다고 언급한 바 있는 가와시마 요시코(川島芳子)는 실제 인물이었다. 일본 스파이로 활동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이렇듯 영화에 대한 무스잉의 관심과 당시 '간첩', '방첩' 서사가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던 중국의 시대적 상황으로 미뤄

10) 엘릭시르 퍼냄, 위의 책, 위의 쪽.

11) 李今, 「新感覺派和二三十年代萊塢電影」, 『中國現代文學研究』, 1997年 第3期, 35-36쪽

12) 그레타 가르보를 언급한 글은 무스잉이 1935년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보(晨報)』에 연재한 『영화 산책(電影的散步)』 시리즈 중 「성적 매력과 신비주의(性感與神秘主義)」, 「매력의 해부학(魅力的解剖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 鄒旭林·譚桂林, 「論民國時期現代諜戰敘事的發生」, 『中國文學研究』, 2015年 第2期, 86쪽

볼 때, 무스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파이 서사를 수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스잉의 스파이 소설 「G No.VIII」은 1932년 8월, 만주를 달리는 국제급 행열차 안에서 시작된다. 탑승객들 중, 검은색 양복을 입은 신사와 그의 방 맞은편에 머물고 있는 독일계 보석상 슈니더와 그의 부인이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차를 탄 순간부터 독일계 보석상 부부를 주시하던 검은색 양복의 신사는 주둔군(駐防軍)의 특수요원(特務員) 타다 테이이치(忠貞一)로, 미래대전의 제국동원계획문서 절도 사건의 용의자인 슈니더 부부를 감시, 조사하기 위하여 하얼빈에서 상하이로 가는 열차를 탄 것이다. 타다 테이이치는 슈니더 부인을 국제프로스파이연맹의 G No. VIII로 의심하고 그들의 짐을 살살이 뒤졌지만, 그녀가 훔쳤다고 의심되는 제국동원계획문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슈니더 부부는 사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화된 러시아를 피해 중국으로 오게 된 러시아 황실의 후손들로, 니콜라이 황실의 복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훔친 문서의 내용을 작은 종이에 베껴 쓴 후, 돌돌 말아 밀랍으로 둘러 그녀가 신고 있는 하이힐에 숨겨 무사히 상하이까지 가져온다.

한편, 국민당의 특무과장 량밍(梁銘)은 1·28사변 당시 국민당의 군사비밀을 훔쳐 공산당 소탕에 어려움을 겪게 한 G No. VIII를 오랫동안 쫓아 다녔지만 그녀의 그림자 근처에도 가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다. 평소 여성편력이 심한 량밍은, 우연히 신문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한 폴란드 여성의 광고를 발견하고, 그 여성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코넬리아(Cornelia)라고 불리는 그 여성을 량밍은 그의 외로운 밤을 함께 보낼 Night Lady로 고용한다. 량밍은 코넬리아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점차 그녀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소설의 여주인공의 원래 신분은 몰락한 황실을 복권하기 위해 국제적인 스파이 G No VIII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실의 후손 리사, 즉 예프리나 공주이다. 하지만 소설 속 그녀는 어림잡아 3~4개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미래대전의 제국동원계획문서를 훔칠 때는 댄서로 변장했었으며, 훔친 문서를 하이힐

에 숨겨 기차를 탔을 때 그녀는 독일인 보석상의 아내 슈니더 부인이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 량밍 앞에서는 폴란드에서 온 코넬리아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신출귀몰한 위장은 오히려 그녀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한다.

량밍은 국제적인 스파이이자 국민당에 손해를 끼친 G No.Ⅷ를 잡아야 하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G No.Ⅷ’라는 부호뿐이다. 과연 그녀는 실제로 존재할까? 실체가 있는 것일까? 량밍에게 그녀의 존재는 마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부호처럼 흐릿하고 투명할 뿐이다. 하지만 흐릿하고 투명한 정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중/다중적인 자아 혹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발현된다. ‘G No.Ⅷ’로서 활동할 때는 요부의 얼굴을 하며 남자를 유혹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목표로 한 물건을 손에 넣는 냉철함과 침착함을 보여주지만, 몰락한 황족의 공주 리사일 때는 두 번째 인용문처럼 아무 걱정 없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영혼의 짝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항상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겨야 하는 기만적 삶은 자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실제의 나’와 ‘위장한 나’의 간극을 메우는 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이다.

한편 평소 여성편력이 심한 량밍은 국민당 특무과장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국제 외환업에 종사하는 상인 광형즈(方衡之)로 위장하여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선다. 물론 량밍의 위장은 업무를 위한 위장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위장이었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짓말은 그가 꽤 긴 기간 동안 낮에는 특무과장으로 밤에는 여자들과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사업가로 이중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찾아간 미모의 폴란드 여성이 본인이 그렇게 쫓던 ‘G No.Ⅷ’임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든다. 그리고 그녀의 담담한 눈동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몸을 곧게 펴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여인은 술을 많이 마셔 입에서는 취기가 오른 도발적인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몽롱하면서도 담담했다. 그건 그의 눈동자가 아니었던가? 기관총의

앞에서도, 비수의 앞에서도, 시체의 머리 앞에서도, 그리고 그의 부하 앞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마찬가지로 담담하고 아무 표정도 없었다. 이 여인은 마치 소련의 꽃무늬 천 같이 막 뿔을 때는 각종 모양과 색깔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 눈이 부시고 다채로워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어떤 느낌도 잡을 수 없다. 한 쌍의 담담한 눈동자만 남아있을 뿐.¹⁴⁾

위의 인용문은 ‘그녀’의 앞에서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사업가 행세를 했던 랑밍이 사실 특무과장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직업 때문에 견뎌왔던 고독과 비애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랑밍은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에게서 그가 갖고 있던 고독과 비애를 발견하고 모종의 동질감을 느낀다.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코에 분을 바른 피에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정체와 신분, 감정까지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가면을 써야 하는 기만적 삶, 그리고 투명하나 분열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고독과 비애가 스파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숙명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황실의 복권을 목표로 몸 파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스파이 활동에 전념하는 리사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속한 백계 러시아인 스파이 집단의 리더인 마야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야에 의해 조종당하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사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그녀 자신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첩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스파이 소설 작가 존 르 카레는, 그의 소설에서 스파이들의 최고 결정 기관을 ‘서커스’라고 지칭했

14) 他挺直了身子看她。在他眼前的那个女人，雖然喝了不少酒，而且從嘴里噴溢着有了酒意的，挑撥的話，却依旧在眸子上涂着朦朧的，淡漠的筆觸。那不就是他自己的眸子么？在機關槍前面，在匕首前面，在尸首前面，在他的部下前面，他不是也同樣地有着淡漠的，毫无表情的眼么？這女人正像蘇聯的印花布一樣，剛一鋪開來，只見各種樣式和顏色一時都映到眼膜上來，像是非常輝煌而多彩的樣子，仔細看了一下，便覺得什麼印象都捕捉不到，只留着一對淡漠的眸子了。” 穆時英 著，嚴家炎、李今 編，위의 책，304쪽

다. 스파이들은 필연적으로 “진짜 인생은 없고 끝없는 쇼가 펼쳐지는 곳”¹⁵⁾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다. 리사와 량밍에게서도 거대한 쇼에서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 여러 가면을 바꿔가며 등장하는 광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가면을 쓴 그들의 표정은 쾌락으로 얼룩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마저도 없는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서 오는 긴장과 회의, 그리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같은 ‘광대’는 무스잉이 천착했던 인물 형상이기도 하다. 그는 소설집 『공동묘지(公墓)』의 서문에서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 「밤(夜)」 등의 소설을 통해 몰락한 광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 광대는 반항이나 분노, 원한 같은 비애의 얼굴 위에 쾌락의 가면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⁶⁾ 아예 ‘광대’를 소설의 제목에 붙인 「PIERROT」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데 결벽이 있어 항상 웃기만 하는 한 남자가 타인에 대한 의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이성(理性)에 대한 의심이 결국에는 절망에까지 다다른 과정을 담고 있다.¹⁷⁾ 이처럼 “무스잉은 의식적으로 도시의 풍경에서 중심인물과 작가의 자아적 초상으로 보다 귀족적이고 방탕한 도령이나 미학적 의미의 떠돌이가 아닌 광대를 택했”¹⁸⁾던 것이다. 리사와 같은 스파이도, 그런 스파이의 흔적을 쫓는 량밍도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수놓은 도시에서 정체성이 탈색된 채 군중 속에 숨을 수 밖에 없는 투명인간이나 비애의 표정을 숨긴 채 쾌락의 가면을 쓰고 배회하는 무스잉의 수 많은 광대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엘릭시르 퍼넬, 위의 책, 26쪽.

16) 穆時英 著, 嚴家炎、李今 編, 『穆時英全集(第一卷)』, 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5, 234쪽.

17) 무스잉 소설 속 광대 형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孫利軍, 「Pierrot_感覺與眞實之間—現代著名作家穆時英小說人物淺論」, 『中國問學研究』, 2000年 第2期, 84-87쪽 참조.

18) 리어우관 지음, 위의 책, 376쪽

3. 장르적 변주: 모호한 피아(彼我)의 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스잉은 「G No. VIII」에서 스파이 소설의 ‘상호기만’과 ‘자기기만’적 특징을 수용하여, 스파이와 그 스파이를 쫓는 자를 그의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 형상인 ‘광대’로 재현했다. 하지만 무스잉은 이 같은 스파이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수용하여 자신의 소설에 이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상하이의 정세와 상황을 반영하며 장르적 ‘변주’를 시도한다.

1843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이 처음 상하이에 토지를 조차한 이래로, 미국과 프랑스도 상하이에 조계지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서구 열강의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뿐 아니라 상하이의 조계지에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백계 러시아인이나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피신 온 유대인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세기 초부터 상하이는 조계지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며 근대적이고 변화한 국제 도시로 변모해갔다. 가장 급진적이고 전위적인 사상(즉 마르크시즘)과 가장 대중적이고 퇴폐적인 사상이 상하이라는 한 도시에 뒤엉켜 있었다. 상하이는 근대 중국의 다양성과 혼란, 호화로움과 위험, 분주함과 한가함, 가난과 부, 전통과 근대 등을 동시에,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 공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상하이는 끝없이 솟아오르는 마천루, 백화점, 영화관, 댄스홀, 커피숍과 같은 이미지로만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20세기 초 상하이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정치적 충돌과 모순이 공존하는 도시였다. 1937년 루거우교 사건 이후에는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상하이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당 군대와 일본군의 군사적 충돌은 날로 심화되었다. 일본군이 국민당 군대의 비밀 전문을 가로채 암호를 해석하거나 중국 공군 전투기들이 폭격 지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수백 명에 시민이 희생되는 일도 있었다.¹⁹⁾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충돌이 지속되었는데, 1920년대부터 상하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상하이 총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과 시위를 반복했고, 이에 대해 국민당은 무력 진압으로 맞섰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충돌 외에 물밑에서의 작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30년대 초 황푸군관학교의 초기 졸업생의 주도로 만들어져 장제스에게 광적인 충성을 바치면서 반공을 위한 특별 임무를 수행했던 단원들은 “체제전복적이라 여겨지는 모든 국내외 세력에 대한 색출에 이용할 수 있는 훈련된 군대나 비밀경찰 기구로 발전했다.”²⁰⁾

이렇듯 근대적이고 변화한 국제 도시이자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으며, 중국 내부의 정치적 충돌과 모순도 격렬했던 상하이는 스파이가 활약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무대였다. 실제로도 1930년대 상하이에 있는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쓰일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스파이가 존재했다. 청나라 왕족 출신으로 청나라가 망한 이후 일본 경찰국장의 양녀가 돼 일본 스파이로 활동했던 가와시마 요시코(川島芳子), 뛰어난 미모와 수준급 일본어를 갖춰 국민당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일본 고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던 정펑루(鄭奉如)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외국인 스파이도 있었다. 2017년 러시아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제정 러시아의 귀족이었다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 상하이로 건너 온 한 백계 러시아인은 반(反) 소비에트 국제조직에 가입하여 상하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중 소비에트에 우호적인 러시아인들의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넘겼다. 그가 작성한 문건에는 그가 상하이에서 감시한 러시아인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소비에트 정부의 정치보위국에서 파견한 스파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²¹⁾

이같은 배경 하에, 1930년대 초반부터 중국 문단에는 원앙호접과 작가들을

19)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 중국을 찾아서2』, 1998년, 이산, 22쪽

20)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 중국을 찾아서1』, 1998년, 이산, 480쪽

21) 193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백계 러시아인 스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논문 참조. 田聿, 「產生于上海的白俄間諜檔案」, 『坦克裝甲車輛·新軍事』 2017年 第10期 58-61쪽 참조.

중심으로 스파이 또는 방첩활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 출현했다. 장헌수이(張恨水)의 『원수 부부(仇敵夫妻)』와 『열혈지화(熱血之花)』, 쉬취다이(徐桌呆)의 『문예가 뛰어난 여인(不枝女進士)』이 1930년대 등장한 대표적인 스파이 제재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난소설(國難小說)’라고 불렀던 이 소설들을 ‘항일구방(抗日救亡)’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며 강렬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민족성은 민국시기 방첩 서사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미적 특징이다. 텍스트의 제재와 내용, 인물 형상 및 언어 면에서 모두 강렬한 민족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²²⁾ 그리고 이 강렬한 민족 의식은 일본이라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주적을 상대로 발현된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일본을 상대로 방첩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을 위해 방첩 활동을 하는 사람을 처단한다. 비슷한 시기 서구의 스파이 소설 역시 명확한 적이 등장한다. 1920년까지 쓰인 스파이 소설에서의 주적은 독일이었지만, 이후에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²³⁾

이에 반해, 무스잉의 소설은 피아, 즉 적군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하고 흐릿하다. 비밀스런 임무를 부여받고 상하이에 모여든 일본인 소좌 타다 테이이치, 제정 러시아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국제 간첩 조직의 일원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리사, 국민당 특무과장 량밍은 모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 일본인 소좌 타다 테이이치와 러시아의 황실 재건을 꿈꾸는 백계 러시아인 G No. VIII, 그리고 국민당의 특무과장인 량밍은 모두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다. 때문에 소설 속에서 이 세 사람(혹은 세 집단)은 사회주의와 대척점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상호 대립하기도 한다.

일본인 소좌 타다 테이이치의 적은 일본이 만주국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대전을 준비하는 내용의 기밀을 훔친 G No.VIII다. 하지만 G No.VIII은 일본이 그녀의 주적이라서 그들의 기밀을 훔친 것이 아니다. 일본은 그저 자신의 적을 처단하기 위한 자금 마련 수단일 뿐이다. 그녀의 진짜 적은 황족이었던 그녀

22) 鄒旭林·譚桂林, 앞의 글, 87-88쪽

23) 줄리언 시먼스 지음, 위의 책, 341쪽

를 내쫓고 항실을 몰락하게 만든 불세비키 혁명의 주역들이다. 그건 량밍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량밍에게 그녀는 1.28사건 당시 국민당의 기밀을 훔치고 몇 번이나 공산당원들을 놓치게 만든 적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량밍과 그가 속한 집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수단일 뿐이다. 그럼 량밍의 적은 당시 중국을 침략하여 반식민지로 만든 일본일까? 소설 「G No.VIII」가 실렸던 『문예월간』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좌익작가들을 집결시켜 민족담론 형성에 힘썼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당시의 독자들과 같은 국적인 량밍 - 그래서 독자들이 가장 쉽게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 의 주적은 중국민족과 중국민족을 침략하여 반식민지로 만든 일본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타다 테이치와 량밍은 똑같이 G No.VIII를 쫓는다는 점에서 묘한 동질감마저 느껴진다. 이렇듯 복잡하게 엮인 관계 속에서 적군은 하나이다가 여럿이기도 하며, 분명하기도 하다가 흐릿하고 모호해지기도 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문제는 바로 이거야. 총을 공산당이 쫓을까 아니면 G No.VIII 쪽에서 쫓을까?"

"네, 확실히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G No.VIII의 배후는 누구일까? 공산당인가? 만약 아니라면 공산당과는 또 무슨 관계일까? 이게 다 문제란 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모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일찍이 알고 있었어. 이번에 진이(金怡)가 총에 맞은 일도 그렇다네. 의심스러워."²⁴⁾

24) “問題是在這裏，這槍是共產黨打的，還是G No.VIII那方面的人打的？”

“是呀！這的確成問題。”

“還有G No.VIII的背景怎麼樣？是不是共產黨？如果不是，那她跟共產黨有什麼關係？這些都是問題。”

“對啦。都是問題，都是問題。”

“而且，我們的舉動，他們都很清楚。我們還麼有做，他們早就知道了。譬如這次金怡被打的事。這一點也很可疑。”穆時英 著，위의 책, 311쪽

위의 인용문은 량밍의 부하인 진이가 작업 수행 중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한 후, 진이가 입원한 병원에서 량밍과 또 다른 부하 마쓰룽(馬四榮)과 진이를 쓴 저격수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량밍은 진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쫓고 있는 G No.VIII의 배후가 누구인지, 혹은 그들의 또 다른 적인 공산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적을 설정하고 피아를 나누며, 지나치게 정교하고 세밀한 속임수로 적을 기만하여 정보를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이 스파이 혹은 비밀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량밍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점은 리사도 마찬가지다. 리사 역시 그녀가 코넬리아라는 신분으로 만나는 남자가 자신을 쫓는 량밍이라는 사실을 마야의 입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다. 이처럼 무스잉의 스파이 소설 속 주인공들이 각종 정보와 첩보가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에서 적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은 스파이 또는 비밀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은 스파이 소설이라는 장르적 완성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²⁵⁾ 실제로 소설 「G No.VIII」에서는 스파이 또는 비밀요원으로서 량밍과 리사가 응당 갖춰야 할 뛰어난 능력을 묘사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정체가 발각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완성하는 스파이와 그런 스파이의 정체를 밝히려 하는 추격자가 자아내는 긴장감과 박진감 역시 부각되지 않는다.

적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은 결국 그로 하여금 그가 잡아야 할 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누구보다도 적이 누군지 알고, 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임무를 가진 특수요원 량밍이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하고 흐릿한 경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스파이 또는 비밀요원이 자신의 적, 그러니까 작업해야 할 ‘타겟’과 사랑에 빠지는 건 스파이 소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이다. 앞서 소개한, 동시대 중국의 국

25) 양후이(楊慧)는 그의 논문에서 「G No.VIII」 속 주인공들이 스파이의 기본적인 소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스파이소설로서 부족한 창작 기교와 서사 장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遭遇“他者”与迷失“上海”— 穆時英中篇小說 G No.VIII 的白俄叙事」,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年 第4期, 146쪽 참조.

난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적과 사랑에 빠진 경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 적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한다. 하지만 「G No.Ⅷ」에서 량밍과 리사는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량밍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고 아무 표정이 없는 그녀의 눈동자에게 자신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동질감을 느낄 뿐이다.

이렇듯 무스잉의 「G No.Ⅷ」이 동시대의 스파이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지라도, 1907년 출간된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의 『비밀요원(The Secret Agent)』 처럼 스파이 장르의 문법을 해체하고 위반 또는 파괴하는 방식을 통하여 실험적인 형식을 시도하는 반(anti)-스파이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²⁶⁾ 다만 무스잉은 당시 중국, 특히 상하이의 복잡한 정세와 작가 자신이 처했던 현실 상황을 투영하며 일종의 ‘변주’를 만들어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30년대 상하이는 “정치적 테러 활동과 폭력 범죄가 연루되어 있었으며, 외국의 조계지와 일본의 점령군 그리고 괴뢰 정부 간의 삼각관계가 유향하는 긴장감은 통제가 어려운”²⁷⁾ 공간이었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세력 경쟁과 중국 내부 정치 세력의 이념 갈등 속에서 명확한 적을 찾지 못하고, 이에 자신의 정체성마저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의 곤경과 곤혹스러움이 바로 그 ‘변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무스잉은 명확한 주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행위를 통하여 애국심과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고취시켰던 동시대의 스파이 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해관계와 대척점이

26) 콘래드의 『비밀요원』은 처음으로 이중간첩을 진지하게 다룬 소설이지만, 명확하게 ‘스파이 소설’이라고 규정되지는 않는다. 줄리언 시먼스는 이 소설에서 콘래드는 “이중간첩의 속성보다는 자기 파괴적 인물들의 지극히 러시아인다운 영혼을 포착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으며, 계정민은 그의 논문에서 “『비밀요원』은 추하고 무능한 스파이 캐릭터를 통해 스파이소설의 이데올로기를 뒤틀고 조롱하는 양상을 보이며, 추악하게 재현된 첩보활동을 통해 반-스파이소설적 효과를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줄리언 시먼스 지음, 위의 책, 340-341쪽, 계정민, 「반-스파이소설과 반-추리소설로서의 『비밀요원』」, 『근대영미소설』 제24집 제1호, 2017년 참조.

27) 魏斐德(Frederic Wakeman, Jr.) 著, 芮傳明 譯, 『上海歹土——戰時恐怖活動與城市犯罪, 1937-1941』, 上海古籍出版社, 2003年, 1 쪽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사를 구현했다.

4.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는 무스잉의 스파이소설 「G No.VIII」에서 나타나는 상호기만과 이중적 정체성의 분석을 통해 스파이라는 형상과 숙명이 무스잉의 문학관에서 중요한 이미지인 광대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는지,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무스잉이 어떠한 장르적 변주를 시도했는지 살펴보았다. 비애와 고독을 감추기 위해 쾌락의 가면을 쓸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와 신분마저 은폐하기 위해 가면을 써야 하는 소설 「G No.VIII」의 스파이와 비밀현상의 형상은 무스잉의 문학세계에서 요한 이미지인 ‘내면의 비애를 감춘 채 웃고 있는 피에로’를 구현해낸다. 뿐만 아니라 무스잉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상하이의 정세와 상황을 소설 속에 투영하며 장르적 ‘변주’를 시도한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적군은 하나이다가 여럿이기도 하며, 분명하기도 하다가 흐릿하고 모호해지기도 한다.

무스잉이 잡지 『문예월간』에 세 번에 걸쳐 연재한 이 소설은 이야기가 아직 완결되지 않는 듯 한 분위기에서 결말을 맺는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 소설이 유능한 스파이들과 비밀요원의 활약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긴장감과 박진감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No.VIII」은 무스잉이 스파이 소설이라는 대중적이고 새로운 장르와의 접점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穆時英著, 嚴家炎、李今編, 『穆時英全集(第一集)』,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5
- 穆時英著, 嚴家炎、李今編, 『穆時英全集(第二集)』,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5
- 穆時英著, 嚴家炎、李今編, 『穆時英全集(第三集)』,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5
- 魏斐德(Frederic Wakeman, Jr.) 著, 芮傳明 譯, 『上海歹土——戰時恐怖活動與城市犯罪, 1937-1941』, 上海古籍出版社, 2003年
- 吳福輝, 「老中國土地上的新興神話——海派小說都市主題研究」, 『文學評論』, 1994年 01期
- 張英進著·馮浩音 譯, 「都市的線條:三十年代中國現代派筆下的上海」,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7年 03期
- 田聿, 「產生于上海的白俄間諜檔案」, 『坦克裝甲車輛·新軍事』 2017年 第10期
- 鄒旭林·譚桂林, 「論民國時期現代諜戰敘事的發生」, 『中國文學研究』, 2015年 第2期
- 韓雪林, 「張力與縫隙:民族話語中的文學表達——對《文藝月刊》(1930-1937)話語分析」, 『文藝爭鳴』, 2010年 13期
- 楊慧, 「遭遇“他者”與迷失“上海”——穆時英中篇小說G No.VIII的白俄敘事」,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年 第4期
- 解志熙, 「“穆時英的最后”——關於他的附逆或犧牲問題之考辨」, 『文學評論』, 2016年 第3期
- 杜心源, 「都市空間與新感覺派的身份認同危機」, 『中國自學自導』, 2006年 第5期
- 孫利軍, 「Pierrot_感覺與真實之間——現代著名作家穆時英小說人物淺論」, 『中國問學研究』, 2000年 第2期
- 李今, 「新感覺派和二三十年好萊塢電影」, 『中國現代文學研究』, 1997年 第3期

期

그럼 질로크 지음·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7

년

리어우판 지음, 장동천 외 옮김, 『상하이 모던』,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년

줄리언 시먼스 지음, 김명남 옮김, 『블러디 머더: 추리소설에서 범죄소설로의 역
사』, 서울: 을유문화사, 2012년

윤노 히로시 지음, 안소현 옮김, 『스파이의 세계사』, 시간과 공간사, 2005년

엘릭시르 펴냄, 『미스테리아』 통권 제3호, 문학동네, 2015년 10월

손주연, 『穆時英 소설의 중층적 욕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박재범, 「1930年代 中國新感覺派小說의 한側面:施蟄存과 穆時英小說의 對比的
考察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31집, 2010년

전윤희, 「穆時英 소설 속의 上海 풍경」, 『중국어문학』 제46집, 2005

노정은, 「무스잉 소설의 근대경험 양상 고찰」, 『중국어연구』 제33집, 2005년

계정민, 「반-스파이소설과 반-추리소설로서의 『비밀요원』」, 『근대영미소설』 제
24집 제1호, 2017년

Abstract

A Study on Mu Shi ying's Spy Novel G No.VIII — Focused on Genr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Park, Eun Hye

This study analyzed what unique literary world Mu Shi-ying's creative tendency combined with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spy novels, using Mu Shi-ying's spy novel G No.VIII, which was famous as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New Sensory in Shanghai in the 1930s. What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spy novels were accepted by Mu Shi-ying and what variations it caused in the literary world of Mu Shi-ying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Mu Shi-ying accepted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spy novels of mutual deception and dual identity and cast the shape of "Invisible Man in the Crowd", hiding himself in a special urban space called Shanghai. The second is a review of the genre variations that Mu Shi-ying attempted. Unlike contemporary spy novels, which inspired patriotism and nationalist ideology through the act of setting clear main enemies and breaking them down, it embodied a narrative in which the interests and counterpoints of the characters were intricately intertwined.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s in the Mu Shi-ying novel reveal the "difficulties" faced by those who were forced to stay in gray areas to survive amid power competition between imperialist countries and ideological conflicts among political forces within China.

Key words : Mu Shi-ying, Spy novel, 「G No.VIII」, Shanghai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

